

아세안 내 개발격차감소와 역량개발 관점으로 본 KOICA의 CLMV 지역 지원전략

문 상 원 (KOICA 지역총괄팀 팀장) · 이 하 늘 (KOICA 동남아시아1팀 지역연구원)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CLMV 개발과제
 - 1. 2015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 2.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 ASEAN-6와 CLMV의 개발격차 해소
- III. 빈곤에 대한 2가지 관점과 개발격차
 - 1. 경제개발과 역량개발
 - 2. CLMV의 경제적 빈곤과 아세안 내 개발격차
 - 3. CLMV의 다차원적 역량현황과 지역 내 개발격차
- IV. KOICA의 CLMV 지원전략
 - 1. KOICA의 對 CLMV 협력목표와 전략
 - 2. 5대 중점협력분야 : 5대 분야 핵심역량 강화
 - 3. 향후 CLMV 사업의 지역과제 접근방법
 - 4. 국별 지원전략 및 실행사업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 아시아 국가 지원 비중은 65%로 24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¹⁾.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친근성 등을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토대로 최우선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 하에 아시아에 대한 지원 비중을 가장 높게 설정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²⁾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의 아시아 중심 방침은 신아시아 외교구상(2009.3), 일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실시하는 최초의 포괄적 다자 이니셔티브인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2008.7)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으로 구체화 되었다. 중점협력국 26개국 중 11개국이 아시아국가인 것 역시 이러한 정부 정책을 반영한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중요한 국가는 아세안국가이며, 이 중 저소득국 국가들인 CLMV에 대한 ODA비중은 점차 확대, 증가하고 있다(표1).

〈표 1〉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아시아 및 메콩유역국(CLMV) 지원실적

(단위 : 백만불)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376.1	490.5	539.2	581.1	900.6
아시아	227.6	300.0	281.4	313.5	587.2
CLMV	46	78.36	103.83	101.67	164.36
아시아내 CLMV 비중	20.2%	26.1%	36.9%	32.4%	28%
미얀마	8.5	0.5	4.4	2.0	3.2
라오스	13.6	17.9	11.6	25.1	27.7
베트남	10.1	24.7	53.2	57.5	96.0
캄보디아	13.8	35.3	34.7	17.0	37.3

* 출처: 수출입은행 ODA 통계

동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아시아 공여국인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공여기관들은 국별 접근을 택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해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이하 CPS) 수립을 통해 국별 맞춤형 협력프로그램을 지

1) 2008-2010년 기준, DAC 회원국 평균은 39%이며, 2위 호주(58%), 3위 일본(57%)순이다.

2) 총리실 국제개발 선진화전략에 따르면 아시아에 대한 비중은 55%내외로 설정함

원하고 있다. 캄보디아(Cambodia), 라오스(Lao PDR), 미얀마(Myanmar), 베트남(Vietnam)으로 구성되는 CLMV 국가 중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은 중점협력국이며, 미얀마는 아직 중점협력국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내에 중점협력국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이미 기 수립된 CPS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라오스 CPS는 현재 수립 중이다. 물론 한국정부는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외에도, 메콩유역국가 중심의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여 상호번영을 위한 한-메콩 간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한강선언³⁾(이하 한강선언)을 채택하는 등 역내 빈곤퇴치와 개발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동 지역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흐름은 지역전략에 기반을 둔 것이기 보다는 여전히 국별 CPS에 기반을 둔 측면이 강하다.

반면, 세계은행, UNESCAP 등은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조금 더 큰 틀 안에서 동 지역에 접근하고 있다. 호주(AusAID)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 CLMV 국가와 중국, 몽골, 북한, 필리핀, 동티모르를 포함시키고, 거버넌스와 경제협력에 초점을 두면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이하 ASEAN) 등 지역공동체와의 협력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역단위 사업을 국별 사업과 병렬진행하고 있다.

사실 동남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메콩유역국가는 하나의 주체로써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 간 연관관계 및 경제·정치·문화·역사·지리적 공동요소가 다분하다.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발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당면하고 있는 개발과제도 비슷하다. 이로 인해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은 일찌감치 광역 메콩강유역개발(Greater Mekong Subregion Program; 이하 GMS) 프로그램을 출범시켜 이들 국가의 경제협력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이 메콩유역 인근국가 5개국에 초점을 맞춘 Lower Mekong Initiative를 출범시켜 교육, 보건, 환경, 인프라 4개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메콩유역국가들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 공여국으로 전환한 태국과 중국을 제외한 CLMV 국가에 대해 국가별 접근을 넘어서 지역에 대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CLMV는 최근 아세안경제통합 등 역사적 사건을 앞두

3) 한강선언은 한-메콩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메콩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기여를 약속하는 개발협력을 주요 의제로 삼고, 개발협력의 6대 분야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녹색성장(산림 및 환경), 수자원 개발, 농업/농촌 개발, 인적자원개발을 선정하였다.

고 공동으로 해결해야하는 뚜렷한 개발과제에 당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별 사업을 기획할 때 지역과제와의 연계성 및 지역개발에 대한 기여도를 함께 고려하면 파급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동 지역전략을 통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역주의(regionalism) 및 지역공동 개발과제의 관점에서 KOICA의 비전이자 새천년개발목표의 첫 번째 목표인 빈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접근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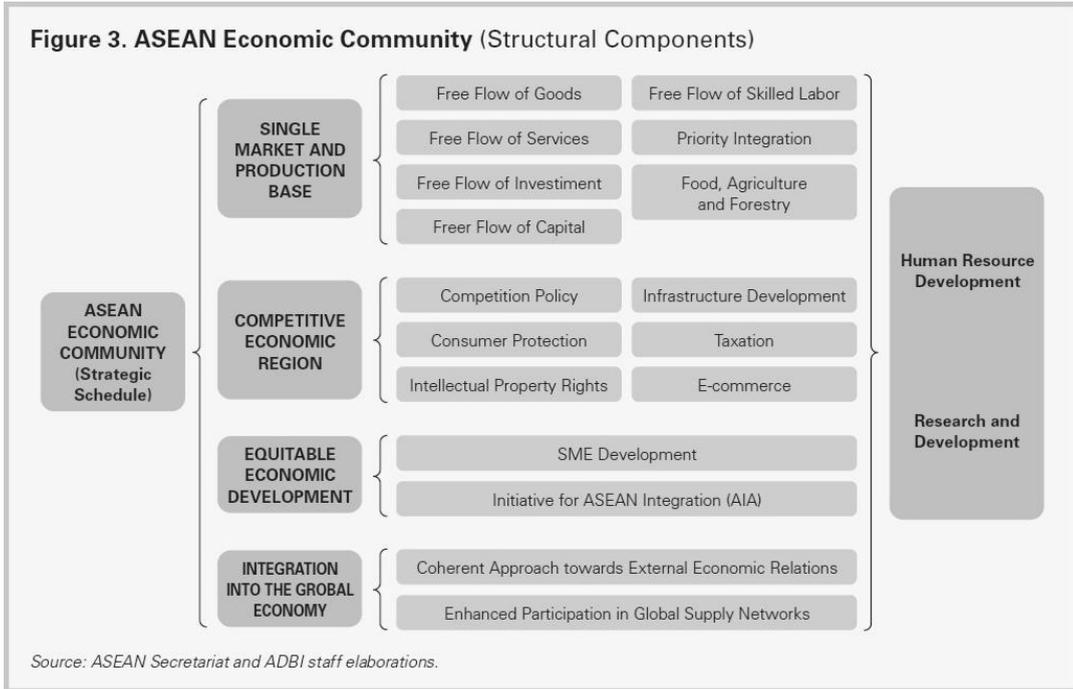
II. CLMV 개발과제

1. 2015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아세안 지역은 지정학적 중요성과 차세대 유망시장으로서 성장잠재력이 높아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ASEAN은 초기 1960년대 정치적 평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급속한 세계화 속에서 동남아 지역을 둘러싼 두 신흥강국 중국 및 인도와의 경쟁까지 심화되자 경제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성 제고를 위해 그 연합의 성격을 경제협력으로 점차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이들의 경제적 지역주의(regionalism) 성격은 지역 내 국가 간 자유무역(ASEAN Free Trade Agreement; 이하 AFTA) 시행 등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최근 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는 바로 2015년에 출범되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이하 AEC)이다. 이는 각 국가들이 경제의 벽을 허물고 '단일시장, 단일생산기지(Single market and production base)'를 설립하여 규모의 경제와 경쟁성제고를 달성하겠다는 동남아 국가들의 의지가 담긴 움직임이다. AEC의 출범으로 2015년 지역 내 모든 관세를 철폐시켜 상품과 서비스, 투자, 자본금, 노동력의 지역 내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사실상, 아세안이 제2의 유럽연합(EU)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통합과 함께 인구규모 세계 3위, 경제규모 9위, 무역규모 5위, FDI 유치규모 10위 등의 거대 경제주체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Pushpanathan, 2012).

〈그림 1〉 아세안 경제공동체 추진방향



* 출처: ADBI, ASEAN 2030 : towards a borderless economic community - DRAFT HIGHLIGHTS

우선 각 국가의 입장에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면서 더 넓은 유통망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새로운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다. 특히 경제주체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고용창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이하 SME)의 입장에서 유통망과 시장의 확대는 폭 넓은 성장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개별 국가에 느끼는 투자 매력도보다 아세안 전체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상승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개발자원 부족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차원에서 함께 산업개발을 기획할 수도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아세안 국가를 하나로 묶은 관광산업 개발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그 외에도 노동인력의 이동이 자유롭게 풀리면서 부족한 노동인력의 유입 혹은 노동자들의 진로다양성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 및 노동자들은 더 넓은 시장에서 더 치열한 경쟁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이제 막 노동연령에 진입하게 될 젊은 청년들은 이제 자국이 아닌 9개의 각기 다른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과 함께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SME 입장에서 그들이 지역통합으로 인해 접근 가능해지는 가치사슬의 영역을 온전히 활용하려면 그를 위한 제도 및 지식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정부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세안

경제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4가지 주요요인으로 자본의 원활한 유동을 위한 금융시장의 발전,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국가 간 연계성 강화 및 굿 거버넌스 구축을 들었다.

〈표 2〉 아세안 경제통합의 해결과제와 가능요인

해결과제 (challenges)	가능요인 (enabling factors)
거시경제 및 금융의 안정적 경영 경제전환 및 균형성장의 촉진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지역 건설 천연자원 개발 및 환경보존	금융시장 발전 인적자원 활용 연계성 구축 거버넌스 강화

* 출처: ADBI, ASEAN 2030 : towards a borderless economic community - DRAFT HIGHLIGHTS

2.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 ASEAN-6와 CLMV의 개발격차 해소

각 아세안 회원국은 인구, 면적 등 자원에 있어 국가 간 현격한 차이만큼이나 경제규모 및 발전단계도 상이하다. 특히 국가발전 측면에 있어서 개발격차(Development Gap)는 도서국가 중심의 기존 아세안 회원국 ASEAN-6와 신규가입국이자 저개발국인 인도차이나 반도의 CLMV 지역 간에 선명하게 드러난다. 1986년 일찌감치 도이모이 정책의 실행으로 발전단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베트남부터 2012년 본격적으로 개혁·개방 절차를 밟기 시작한 미얀마까지, CLMV 국가는 모두 기존의 폐쇄적 중앙계획 체제에서 개방적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ASEAN-6에 비해 늦게 시행된 경제개방 정책은 두 집단 간 개발격차(Development Gap)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개발격차는 아세안 경제통합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원활한 통합으로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상태에서 지역통합이 진행된다면 그를 통한 경제적 혜택의 흡수 능력이 달라 지역 내 불균형 분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균형성장을 목표로 하는 AEC 내의 개발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편, 이러한 경제적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분야에 있어서 아세안 국가 간 연계성 강화이다. 연계성 강화는 무역·투자 촉진 및 생산네트워크 강화 등 경제공동체로서의 경쟁성 제고의 필수 전제조건이 된다. 이에 아세안은 경제공동체로서 완전한 기능을 위해 국가 간 연계성(connectivity)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0년 하노이선언을 통해 연계성 강화 마스터플랜(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을 채택함

로써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 강화를 도모하기로 하고 중점 연계분야별 주요과제에 대한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했다.⁴⁾ 하지만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국가 간 제도의 표준화 및 통합정책의 이행을 위한 역량이 바탕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CLMV의 상대적 역량 및 제도적 격차로 인해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아세안은 CLMV와 ASEAN-6 간 경제개발 격차해소에 중점을 두고 연계한 개발격차 완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실제로 2000년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통합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이하 IAI)를 출범시켜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를 줄이기(narrowing development gap)에 집중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CLMV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순위 분야인 △에너지·교통 △인적자원개발 △ICT △지역경제통합 등 4개 분야에 대해 2009년까지 약 250여개의 사업을 수행했다.

우리는 여기서 아세안 경제통합이 CLMV 국가에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적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의 통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발전된 싱가포르, 태국보다 CLMV 국가에서 아직 덜 준비되고 덜 교육된 청년들이 느끼는 경쟁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클 것이다. CLMV 국가 내 각 개인이 더 나은 교육과 보건의 혜택으로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제도적, 물적인 측면에서도 상대적 역량과 개발재원이 부족한 CLMV 국가 정부가 이미 문턱에 다가온 경제통합의 시대에서 효과적으로 격차를 완화하고 경제통합에 따른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가질 수 있도록 국가 운영을 위한 여러 측면의 역량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사실 CLMV 국가와 시민의 역량강화는 KOICA의 비전인 빈곤감소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Ⅲ. 빈곤에 대한 2가지 관점과 개발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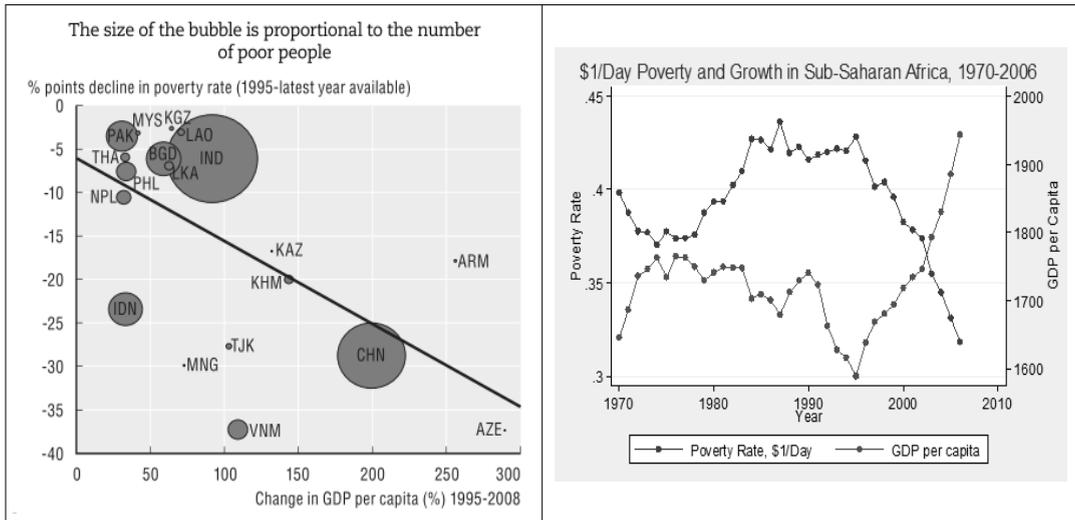
1. 경제개발과 역량개발

KOICA의 미션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의 실현과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를 통한 범지구적 개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4) 예를 들어, 물적 연계성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ASEAN ICT master plan을 수립

미션에는 개도국의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삶의 질로 대표되는 다차원적인 빈곤감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CLMV의 빈곤 감소를 위해 KOICA의 사업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림 2〉 성장률에 따른 빈곤감소율



* 출처: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11, / <http://cf.owen.org>

빈곤 감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략은 점진적으로 진화되어 왔다. 1960년대까지의 빈곤감소 전략은 서구를 모방한 근대화 전략과 대규모 자본과 기술을 투입한 경제성장이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통해 경제 시스템상의 최하단에 위치한 경제주체까지 성장의 혜택이 도달한다는 이론에 근거하였다. 따라서 국제개발에 있어서도 대규모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각종 경제 인프라 프로젝트가 주류였다.

실제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경제의 성장률이 높을수록 빈곤감소의 속도가 빠르다는 통계에 근거하여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한다. 상기 그림 2에서 보듯 아시아에서의 1995년부터 최근까지 빈곤률 감소정도와 1인당 GDP 변화정도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하라사막이남 아프리카의 경우에서도 빈곤률과 1인당 GDP간에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전통적인 경제 성장에 따른 빈곤 감소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초기에 UN이 MDGs 8개 목표중 제1의 목표를 전 세계에서 하루에 1.25 달러 미만으로 생활을 하는 절대빈곤 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것을 설정했던 것 역시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 소득관점에서 해석되는 빈곤보다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빈곤을 정의할 수도 있다. 개발경제학자 아마티아 센은, 단순 경제적 빈곤은 소득이 있다 해도 그것을 좋은 삶으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변수들을 간과한다고 지적했다(Sen, 1999). 엄밀히 말하자면, 빈곤이란 개인에게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여러 차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의 제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빈곤의 문제는 단순 소득의 측면이 아니라 소득을 벌수 있고 그것을 좋은 삶을 영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정치, 교육, 사회 등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결국 인간의 다차원적 역량 강화는 곧 빈곤감소 전략이 된다.

각각의 역량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적 역량은 식량안보, 물질적 복지 및 사회적 지위에 필요한 소득을 창출 및 소비하고, 자산을 소유하는 능력이다. 이는 또한 토지, 숲, 가축, 어업장, 신용, 취업 등 생산적인 재정적, 물리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측면과 연관된다. 이러한 경제적 역량은 앞서 이야기한 경제적 빈곤과 연관 있다.

다음으로 인적역량은 보건, 교육, 영양, 안전한 식수와 쉼터에 바탕을 둔다. 예를 들어 질병과 문맹은 생산적 업무를 통한 빈곤 감소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 역량은 인권, 발언권, 그리고 공공정책 및 정치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영향력을 포함하며, 탄압과 폭력에 대해 정치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사회·문화적 역량은 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고 한 사회의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보호적 역량은 경제적·외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역량으로 기아와 식량안보, 질병, 범죄, 전쟁, 자연재해, 경제 위기 등 불확실성과 취약성을 줄이는 것은 빈곤의 예방에 있어 중요하다(한국국제협력단, 2011b).

2. CLMV의 경제적 빈곤과 아세안 내 개발격차

OECD 기준으로 최근 중저소득국으로 진입한 베트남을 제외하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모두 최빈국에 속할 정도로 CLMV의 경제적 현황은 열악하다.⁵⁾ 특히 아세안 통합시대를 앞두고 CLMV와 ASEAN-6 간의 경제적 격차는 2010년을 기준으로 1인당 GDP의 격차가 거의 16 배에 달할 정도로 크다. ASEAN-6 중에서 아웃라이어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를 제외한다고 해

5) OECD는 1인당 GNI가 \$1,005 미만인 국가를 최빈국(Low Income Country)으로, \$1,006~\$3,975 사이인 국가를 중저소득국(Low-Middle Income Country)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 소득격차는 4배에 달한다. 인구 규모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한 가중평균을 계산하여도 1990년대에 CLMV와 ASEAN-6간의 소득격차는 11배에 달했으며, 현재는 그 격차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기준으로 4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ADBI, 2012).

〈그림 3〉 아세안 1인당 GDP 최근 20년 추이 (1990-2010)

Economies	1990	1995	2000	2005	2010
Brunei Darussalam	13,913	16,495	18,465	25,759	30,173
Cambodia	106	297	288	455	733
Indonesia	699	1,144	807	1,300	3,023
Lao PDR	217	391	304	464	1,035
Malaysia	2,432	4,358	4,030	5,213	8,260
Myanmar	68	123	178	216	715
Philippines	718	1,105	987	1,159	2,014
Singapore	12,388	23,716	22,791	28,500	43,898
Thailand	1,521	2,826	1,983	2,825	4,735
Viet Nam	98	289	402	637	1,239
ASEAN	805	1,415	1,166	1,630	3,105

〈그림 4〉 최근 20년 CLMV vs. ASEAN-6 격차 추이 (1990-2010)

	1990	2000	2010
Value in US\$			
ASEAN-10 Average*	805	1,166	3,105
ASEAN-6*	1,064	1,537	3,973
CLMV*	94	318	990
Ratios			
ASEAN-6/CLMV	11.32	4.83	4.01
ASEAN-10/ASEAN-6	0.76	0.76	0.78
ASEAN-10/CLMV	8.56	3.67	3.14

*Weighted average by 2010 population shares.
 GDP=Gross Domestic Product; ASEAN-6=Brunei Darussalam,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CLMV=Cambodi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Myanmar, Viet Nam.
 Sour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ADB Database.

* 출처: ADBI, ASEAN 2030 : towards a borderless economic community - DRAFT HIGHLIGHTS

한편, 절대적 빈곤층에 있어서도 큰 격차가 존재한다. CLMV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인구의 29.3% 이상이 하루 1.25\$ 미만의 절대 빈곤층으로서 ASEAN-6 중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를 제외한 4개국 평균 12%보다 훨씬 높은 절대 빈곤층을 가지고 있다.

〈표 3〉 아세안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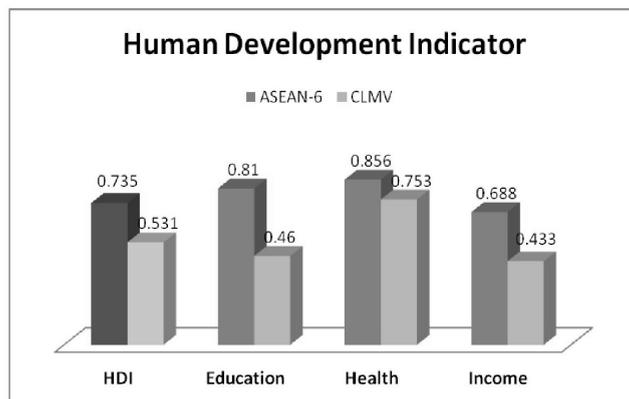
2010 기준	1.25\$/일 이하 인구	비 교
캄보디아	25.8%	CLMV 평균 29.3%
라오스	44.0%	
미얀마	26%	
베트남	21.5%	
인도네시아	21.4%	ASEAN-6 평균 12% (브루나이, 싱가포르 제외)
말레이시아	2%	
필리핀	22.6%	
태국	2%	

* 출처: OECD, 2011

3. CLMV의 다차원적 역량현황과 지역 내 개발격차

앞서 살펴봤듯이, 비단 국가의 소득만이 빈곤상황을 설명해주진 않는다.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적개발현황 및 제도적 개발현황도 많이 뒤쳐진다. 먼저, 교육, 보건, 소득 등 다각적 측면에서 인간의 기본역량 및 삶의 질을 측정하는 인간개발지수(HDI)에 의하면 2011년을 기준으로 총 187개국 중 미얀마가 149위, 캄보디아 139위, 라오스 138위, 베트남 128위를 기록하였다. 상대적 측면에서도 ASEAN-6와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국가발전의 핵심이자 삶의 질 향상에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그 격차가 가장 심각하다.

〈그림 5〉 인간개발지수(HDI) : CLMV vs. ASEAN-6 (2011)



* 출처: UNDP Web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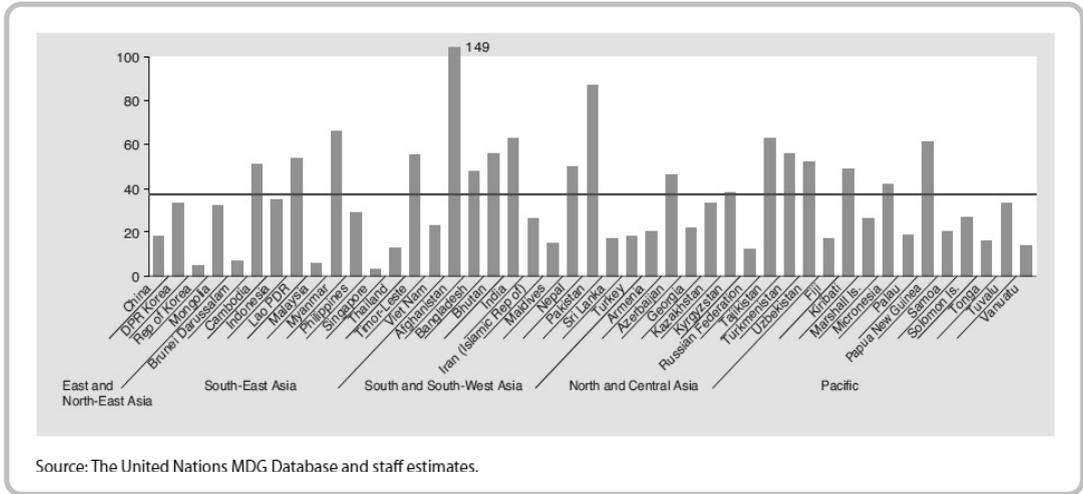
〈표 4〉 CLMV 인간개발지수(2011)

Myanmar 149위	HDI value	0.483
	Education	0.404
	Health	0.713
	Income	0.391
Cambodia 139위	HDI value	0.523
	Education	0.502
	Health	0.68
	Income	0.418
Laos 138위	HDI value	0.524
	Education	0.432
	Health	0.749
	Income	0.445
Vietnam 128위	HDI value	0.593
	Education	0.503
	Health	0.87
	Income	0.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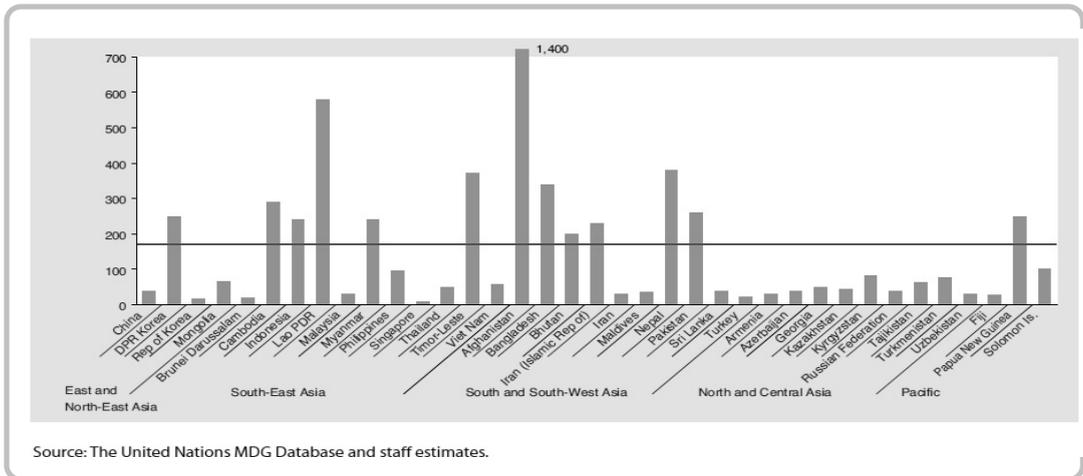
* 출처: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 측면에서 보더라도, 베트남은 대부분의 MDG가 달성되었거나 목표기간 내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지만,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아직도 보건, 교육 등 인적개발에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개발현황이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대부분 초등교육 입학률에 있어서는 큰 성과를 이뤄냈으나,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진입 시 경제적 사정 혹은 주변에 학교가 없어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고급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직업기술훈련교육에 대한 많은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교육의 질적 문제와 산업수요의 적절한 반영이 부족해 산업과 노동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사무직·전문직 선호사상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산업 기술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보건과 관련해서도 MDG 4, 5번 목표와 연관된 아동사망률 및 모성사망률이 베트남을 제외한 세 국가 모두 아시아태평양의 지역 평균보다 훨씬 웃돌고 있어 보건서비스의 확대와 질적 수준 제고 모두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그림 6〉 아시아태평양 5세 이하 아동사망률 비교(1,000명 당, 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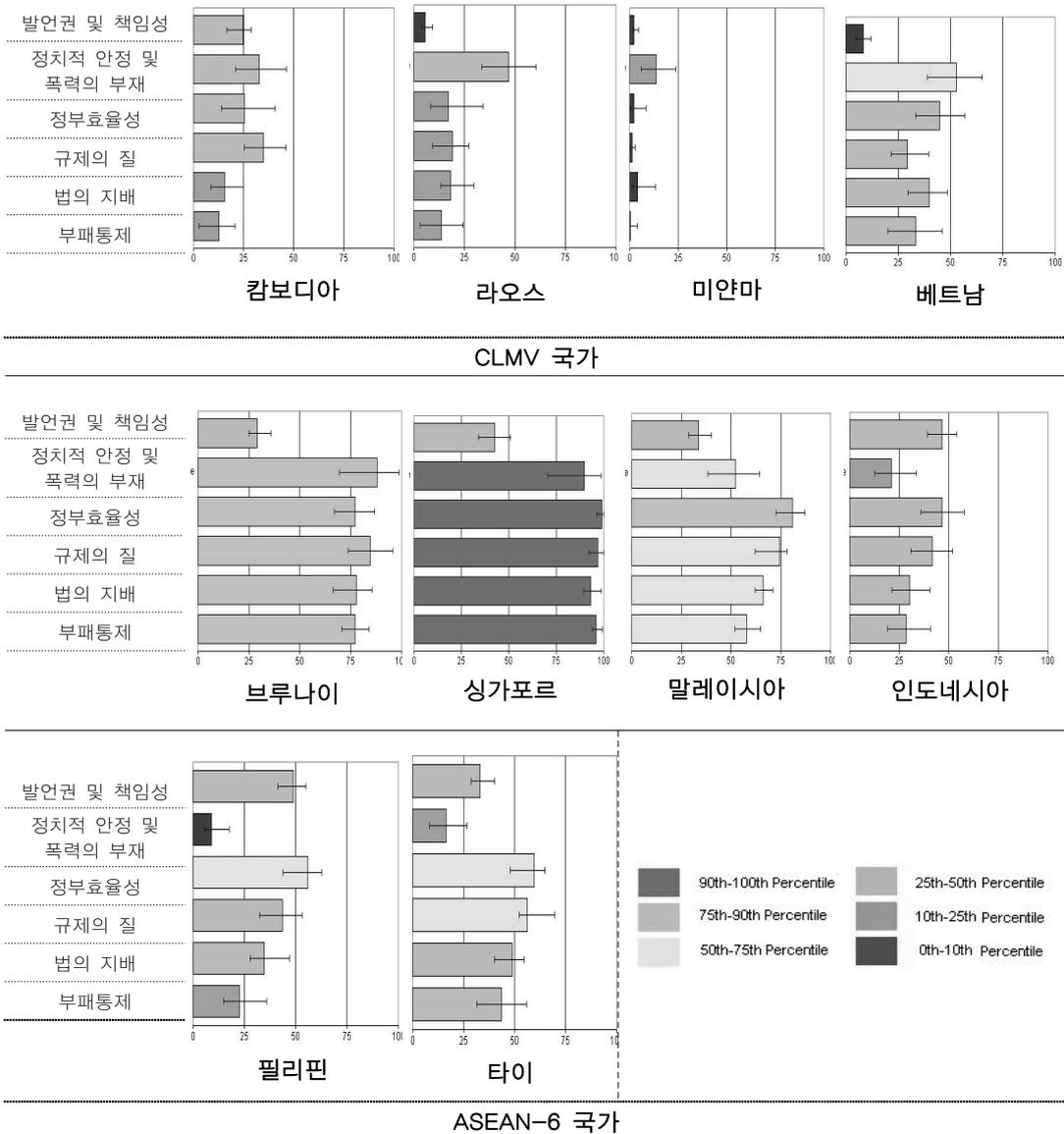
〈그림 7〉 아시아태평양 모성사망률 비교(100,000명 당, 2008년 기준)



* 출처: UNDP (2012)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의 거버넌스 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를 통해 국가발전의 핵심요소인 제도적 안정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의 제공에 있어 정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볼 수 있다. 중저소득국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CLMV는 정부의 효율성이나, 법치, 규제 질, 부패에 대한 통제 등에서 개발현황이 미약하다. 특히 ASEAN-6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 많이 보이는데, 각 국가의 개발단계가 거버넌스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8).

〈그림 8〉 거버넌스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 : CLMV vs. ASEAN-6 (2011)



* 출처: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

UN에서 발표한 전자정부 지수도 조사대상 총 190개 국가 중 베트남을 제외한 세 국가가 150위 이하를 기록해, 정부 및 국가의 정보화와 업무전산화 수준이 매우 뒤처짐을 보여준다. 정부 및 부처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예이며, 때문에 부처 간 혹은 정부-국민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표4).

〈표 5〉 CLMV 전자정부 지수 비교

순위 (총190개국)	국가	지수	온라인서비스	통신인프라	인적역량
83	베트남	0.5217	0.4248	0.3969	0.7434
153	라오스	0.2935	0.2157	0.0998	0.5651
155	캄보디아	0.2902	0.1895	0.0814	0.5997
160	미얀마	0.2703	0.1046	0.0000	0.7064

* 출처: UN (2012)

외국인 투자유치에 중요한 기업환경을 측정하는 Doing Business Index(2013) 보고서는 총 185개국 중에서 라오스를 163위, 캄보디아 133위, 베트남 99위로 올렸다. 최근에야 경제를 개방한 미얀마는 아직 측정되지 못했다. 반면 ASEAN-6 중 싱가포르를 세계 1위, 말레이시아 12위, 태국 18위 등 상위권에 머물렀고, 그동안 자원에 의존해왔으나 최근 산업의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는 브루나이는 79위에 올랐다. 특히 개방정책을 통해 해외 개발재원과 투자의 유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CLMV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에너지 소비량 증가와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가능성도 증가하였다.⁶⁾ 2011년 동 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에서 보듯, 극단적인 기상이변과 강수량 및 강수패턴의 변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요한 함의를 나타낸다. CLMV 국가는 다른 아세안 국가와 비교해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취약하다.

〈표 6〉 아세안 국가 간 기후변화 위험도 비교 (Climate Risk Index)

1992-2011 평균	CRI(기후변화위험도)	1992-2011 평균	CRI(기후변화위험도)
캄보디아	28위 (44.5)	브루나이	171위(159)
라오스	68위 (71.3)	인도네시아	50위(59.5)
미얀마	2위(11)	말레이시아	88위(83.8)
베트남	6위(23.7)	필리핀	14위(35.2)
		싱가포르	176위(163.3)
		태국	9위(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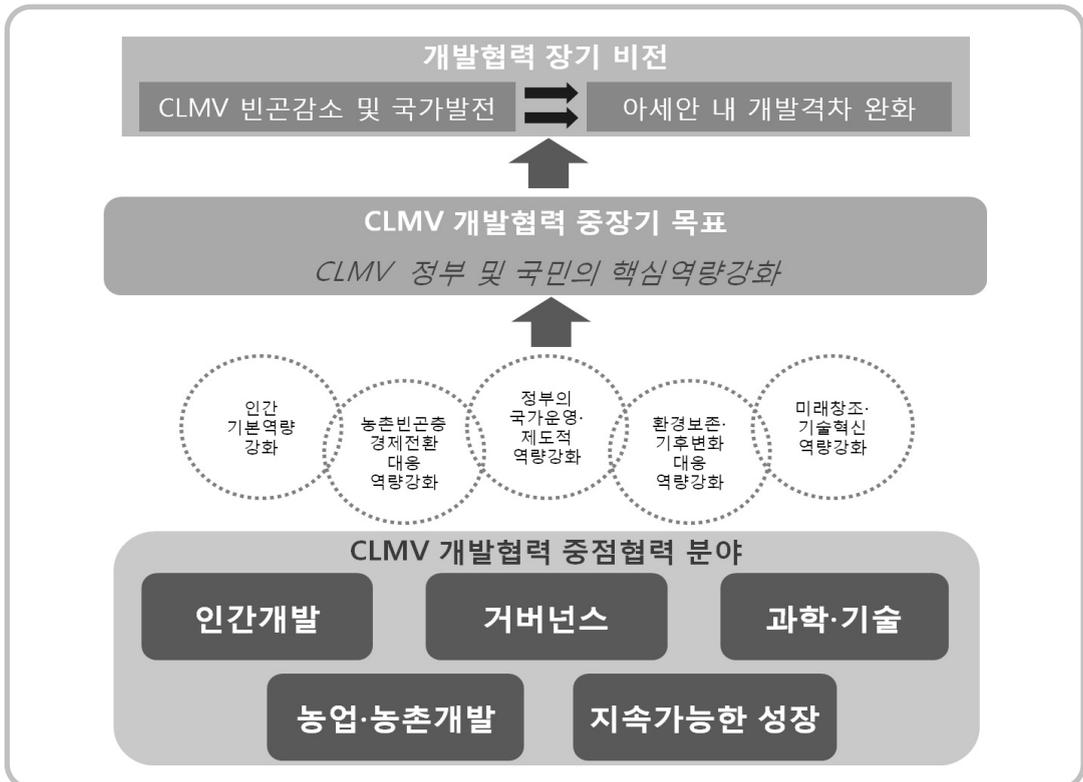
* 출처: Germanwatch, www.germanwatch.org

6) 지난 세기 동안 메콩강 유역의 평균기온은 0.3°C - 0.8°C 가량 상승하였다.

기후변화 취약성을 나타내는 기후위험지수(Climate Risk Index)의 최근 20년간 국별 지수 평균에 따르면 미얀마와 베트남은 각각 2위, 6위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지목되었다. 지리적으로 메콩유역에 비슷하게 위치한 태국도 9번째로 취약하다. 이는 특히 농업에 의존하는 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CLMV 국가에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는 농산물의 생산량 및 상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농업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농촌 빈곤층의 생활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단적인 예로, 미얀마에서는 2008년 나르기스 사이클론으로 인해 피해지역 의료·보건 시설의 75%가 손상되었고, 2010년에는 홍수로 인해 쌀 생산량이 25%정도 감소했다(ADB, 2012). 건기에는 가뭄으로 쌀의 품질이 떨어져 농민들의 가격협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IV. KOICA의 CLMV 지원전략

〈그림 9〉 CLMV 개발협력 중장기 목표 및 전략



1. KOICA의 對 CLMV 협력목표와 전략

KOICA는 CLMV 국가의 빈곤감소라는 미션을 달성함에 있어, 단기성 지원보다는 경제발전의 견인 역할을 하는 정부의 국가발전 능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경제적 소득을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여러 제도·인간적 역량강화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인간이 빈곤을 벗어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개발협력의 효과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CLMV 국가의 집중 역량강화는, 중장기적으로 아세안 경제통합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내 개발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KOICA는 CLMV 국가에 가장 핵심적인 5개 분야를 선정하여 개발협력 재원을 집중 배분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로 했다.

2. 5대 중점협력분야 : 5대 분야 핵심역량 강화

교육/보건 등 인간의 기본 역량강화, 정부의 행정 및 경제 운영능력 강화, 거대 쌀 생산기지인 CLMV 농업 역량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 능력 강화 및 다가오는 경쟁시대와 자원의존적 경제체제에서 기술 및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점진적 성장을 위한 혁신적 역량 강화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① 인간개발 (Human Development) : 인간 기본역량 강화(보건·교육)

앞서 살펴봤듯이 단순한 국가경제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빈곤감소로 이어지지 못한다. 빈곤이란 각 개인이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과 기회가 박탈된 상태 자체를 말하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각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건은 건강한 신체와 읽고 쓰며 사고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다. 건강의 약화는 직·간접적으로 성장을 낮춤으로써 빈곤을 악화시키고 개발을 지연시킨다(WHO, 재인용).⁷⁾ 말라리아와 HIV/AIDS라는 치명적 질병은 아프리카 대륙의 빈곤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국가발전의 해로운 역할을 했다(WHO, 재인용).⁸⁾ 반대로 건강한 사람은 생산성이 올라가 더 나은 소득창출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육은 인간의 생산성을 더욱 높여주고 고용의 기회를 높여줌으로써 소득창출의 기회를 높여준다.

7) Hamoudi A. and Sachs J., 1999

8) Fosu A. and Mwabu G., 2007; Bonnel R., 2000

그 뿐 아니라 교육을 통해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율을 제고하고,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역량이 개선되는 등 사회적 혜택도 크다(UNESCO, 2008).

교육분야 협력프로그램 예시 ⁹⁾		
프로그램	전략목표	세부프로그램
기술 인력 양성	양질의 직업훈련 기회 제공을 통해 국가와 아세안 통합시장의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개인의 기술능력 제고로 빈곤감소 및 소득 증대에 기여	1. 직업훈련 기회 촉진 훈련기회의 양적 확대 도모, 훈련환경 개선, 직업훈련 참여격차 해소 등 2. 직업훈련의 질 확보 교사양성 및 역량강화, 훈련과정 및 교수법 개선, 교재보급, 기자재 및 교보재 확충 등 3. 직업훈련 정책 및 제도 개선 국별 산업인력 양성목표 및 MDGs 달성,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도입, 산업정보 시스템 도입 등
고등 인재 양성	경제·사회 개혁 및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여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입 및 성장잠재력 제고에 기여	1. 고등교육 기회 촉진 교육기회의 양적확대 및 격차해소 등 2. 고등교육 질적 향상 교수역량강화, 교육과정 개선, 교육지원시설 확충 등, 교육기관 역량강화 등
보건분야 협력프로그램 예시		
프로그램	전략목표	세부프로그램
보건 의료 체계 강화	보건의료 인적, 제도적 역량강화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 향상을 도모하고 MDG 4 & 5의 달성에 기여	1. 보건의료 인적역량 강화 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양성시스템 구축, 기초 보건인력 양성 등 2. 제도적 역량강화 보건 의료정책 인력 양성 및 정책역량 강화, 보건의료 정보체계 강화, 의료보험 및 재정적 역량강화 등 3.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기초보건 및 의료 전달시스템 강화 등

CLMV 지역은 만성적인 보건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고 특히 농촌 및 외딴지역을 중심으로 상황이 심각하다. 하지만 아세안 경제통합의 일환인 서비스 자유화 우선순위 대상 11개 분야 중 하나가 보건으로 선정되면서 그나마 공공 보건부문에서 종사하던 보건인력의 상당부분이 민간부문으로 직장을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의 추세라면 기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인력의 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예정이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보건인력의

9) 5대 중점협력분야의 프로그램(안)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각 중점분야 지원전략 및 주동주 외(2012)의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바탕으로 CLMV 현황에 맞게 각색하여 제시함.

양성과 동시에 이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 초등학교 등록률 측면에서는 이미 MDG를 거의 달성한 상황이지만, 중등교육 등록 및 이수율과 고등교육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아세안은 지식기반의 경제공동체 구축과 공동체의 경쟁성 제고라는 분명한 목표를 위해 교육을 필수적 달성수단으로써 인식하고 협력에 힘쓰고 있다. CLMV와 ASEAN-6간의 교육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경쟁력 있고 기술 혁신적인 공동체 설립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점점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될 예정이며, 그를 위해 아세안은 각 국가의 고등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교육의 수준과 빈곤은 반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CLMV 국가의 젊은 청년들이 향후 아세안 노동시장에서 타 국가에서 온 고기술 인력과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더 높은 차원의 교육기회를 넓혀주고 경쟁성을 키워주기 위한 지원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한 고등교육 기관의 전반적 교육·연구·운영 등 다차원적 역량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세안 지역 전반적으로 볼 때 경제통합시대에 CLMV 지역이 가지는 가장 큰 비교우위 중 하나는 당분간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에서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업 및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각 국가별 산업화 계획의 추진을 위한 모멘텀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거버넌스 (Governance) : 국가운영 및 제도적 역량 강화

CLMV와 같은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개발의 주체가 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외부의 투자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이러한 정책 제도를 스스로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Good Governance’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지난 50여년동안 실시해 온 개발성과를 사례중심의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개발원조 실시에 필요한 교훈을 도출한 바 있는데, 발전의 장애요소는 자본격차가 아니라 정책 및 제도격차에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World Bank, 1998). 또한 세계은행은 1989년 발간한 보고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 위기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Sub-Saharan Africa : From Crisis to Sustainable Growth)’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빈곤 원인 중 하나로 거버넌스의 실패를 지적하고,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한국국제협력단, 2011a, 재인용). 이러한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하며, 국내외 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배분하는 정부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경제가 통합되는 현 시점에서 특히 대외개방형 경제정책 실행에 있어 신생인 CLMV 정부 입장에서는, 핵심 지도자들이 시장경제의 올바른 정착과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의 산업 및 경제개발에 대한 이해도 및 역량을 신속히 강화시킬 필

요가 있다. 또한 한국이 세계 최고수준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자정부 구축 등으로 국가의 행정효율성을 증진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경제공동체로서 긴밀히 움직여야하는 아세안 정부 간의 연계성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거버넌스 분야 협력프로그램 예시		
프로그램	전략목표	세부프로그램
기관 및 제도적 역량강화	기관 및 공무원의 역량강화로 개혁 추진능력을 제고해 원활한 시장경제전환 및 ASEAN경제통합에 기여	1. 경제 및 산업개발 역량강화 경제개발 및 산업개발을 위한 정책·전략의 수립과 자문, 중단기 자문단 파견 등 2. 시장경제 이행 지원 산업단지 개발, 무역·투자 활성화 지원, 증권시장 개설 및 운영역량 강화 3. 공무원 역량강화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현지 및 초청연수
전자정부 구축	전자정부 구축을 통한 정부의 행정 효율성 및 국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고, ASEAN 개발과제 우선추진으로 지역 연계성(connectivity) 제고에 기여	1. 제도적 기반 구축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및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등 (ASEAN ICT 마스터플랜과 연계) 2.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 전자정부 모델 구축, 국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별 부처별 시스템 고도화 등 - 지역통합 공통과제 우선 고려* *예) e-Commerce, 전자통관, 여권정보 시스템 등

③ 과학·기술 (Science and Technology) : 미래창조·혁신 역량 강화

기술과 지식 바탕의 경제구조에서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치열해지는 세계시장의 경쟁 가운데에서는, 계속해서 혁신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자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World Bank, 2008). 이런 세계적 추세 속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 및 개발이 부의 창출의 바탕이 된다. 과학·기술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서 사치스럽게 생각하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개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CLMV는 산업화와 동시에 전반적으로 산업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저부가가치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핵심 산업 육성 등 산업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다. 특히 총 수출제품 중 첨단기술제품의 비율이 적게는 10%(인도네시아)에서 많게는 65%(필리핀)까지 차지하는 ASEAN-6국가와 매우 대조된다.¹⁰⁾

10)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

과학·기술이 발전되면 경제개발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사회개발에도 효과적으로 접목시켜 빈곤 감소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접근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각 산업 중에서도 특히 많은 인구가 의존하고 있는 농업 분야에 기술을 개발하여 가치사슬을 강화하고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가 취약한 CLMV 국가들의 자연재해 취약 지역의 예방 및 대응 기술을 강화시킬 수 있다.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의 가속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뿐 아니라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의 시장으로 결합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진정한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해 국가·계층 간 정보격차를 낮추고 경쟁력 있는 단일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분야이다. 이를 위해 아세안은 전략적 기술, 기술 인력 및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구체적 비전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가별로 심각하게 나타나는 기술 연구역량의 편차로 인해 진정한 기술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¹¹⁾

과학·기술 분야 협력프로그램 예시		
프로그램	전략목표	세부프로그램
정보통신 기술(ICT) 역량강화	정보통신기술의 제도적 기반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 정보화 수준 제고를 통한 지식경제 진입에 도움을 제공하고, ASEAN의 정보공유 능력향상을 통한 연계성 강화에 기여	1. 정보통신망 고도화 제도적 기반 마련 정보통신 마스터플랜 수립, 입법관련 정책자문 2. ICT 전문인력 양성 ICT 관련 훈련·교육센터 설립, IT대학 역량강화
산업기술 연구·개발 역량강화	산업 기술 연구 및 개발 관련 제도적·인적 역량 및 기관역량 강화를 지원해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고 ASEAN 경제통합시대에 대비	1. 산업기술 연구·개발 기관설립 및 역량강화 전담부처 설립, 연구기관설립, 기관운영 자문 2.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교육·연수기회 제공 등

④ 농업·농촌 (Agriculture&Rural Development) : 농촌빈곤층 경제전환 대응역량 강화

CLMV 국가들은 모두 농어업 기반의 경제로서, 농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인구의 70-80% 가량이 농촌에 거주할 정도로 농촌인구의 비율이 높고, 특히 베트남은 빈

11) ASEAN; www.asean.org

곤층의 80-90%가, 캄보디아는 빈곤층의 9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할 정도로 빈곤층과 관련이 높아, 농업관련 산업의 발전과 농촌의 지역개발은 빈곤층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표 7〉 CLMV 국가 농업 의존도

	농업부분의 부가가치 창출(%)(GDP 대비)			농촌 거주인구 비율(%)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캄보디아	36	36	37	80	80	80
라오스	35	33	31	68	67	66
미얀마	-	-	-	68	68	67
베트남	21	21	22	70	70	69

* 출처: World Bank Database

특히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쌀 생산기지이다. CLMV 지역에서도 농산물은 가장 중요한 수출품목이다. 하지만 쌀이라는 단일 품종에만 대부분을 의존하는 농업의 구조적 특성상 계절에 따른 소득변동이 커서 안정적이고 충분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통합을 통한 더 넓은 소비시장으로의 접근이 가능함과 동시에 경제 산업화로 인해 소비패턴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원예농업과 같은 곡물 외 작물농업을 소개하여 새로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농작물의 다양화 및 상품성 제고가 필요하다. CLMV는 특히 농업 생산량 제고에 필수적인 기본 인프라와 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역량이 미약해,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에도 불구하고 잠재 생산량을 완전히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품질관리와 연관된 역량 및 기술이 부족해, 농업 생산물의 시장에서의 상품성과 경쟁성을 제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를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든 CLMV 국가는 경제체제의 전환기에 있는 국가인 만큼, 경제 산업화에 맞춤형 농업의 개발이 향후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아세안 경제의 통합과 함께 농업 생산 및 판매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수출관련 동식물 검역을 포함한 식품안전 기준 강화, 농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국제적 신뢰도 제고 및 수출경쟁력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또한 농촌종합개발 등으로 농가 및 농촌 환경의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개발의 모범사례를 도출하여 농촌의 빈곤층에게 긍정적 마인드와 동시에 변화하는 경제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혁신하여 자생하는 방법론적 지원의 병행이 필요하다.

농업·농촌개발 분야 협력프로그램 예시		
프로그램	전략목표	세부프로그램
농·어업 가치사슬 확대	생산성 향상과 상품성 제고를 통해 ASEAN 통합으로 인한 경쟁 심화시대에 쌀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가격 협상력 제고에 기여	1. 농어업 생산성 향상 관개시설 인프라구축 및 관리역량 강화, 농업의 기계화 지원, 농업기술 지원, 수산업 양식기술 전수, 가축 질병관리 역량강화, 농지 제도관리 등 2. 농산품 품질 및 상품성 제고 농산품 안전·위생 관리, 수확 후 관리 기술 연구 및 훈련, 미곡 도정 역량 강화, 유통체제 구축, 마케팅 및 수출역량 강화 등
농촌지역 종합개발	산업단위의 농업개발 및 지역단위의 농촌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농어민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1. 소득원 다양화 농촌금융 활성화, 비농업 소득창출 등 2. 농어촌종합개발 (새마을 운동) 마을 조경 개선, 주민의식 고취, 협동체제 구축 등

⑤ 지속가능한 성장 (Sustainable Development) : 환경보존 및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아세안은 매우 다양한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천연자원의 효율적이고 신중한 활용과 자연의 보호는 아세안 국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메콩강위원회¹²⁾를 설립하여 메콩강 유역국가로서의 올바른 수자원관리와 환경보존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도 했다. 또한 앞서 살펴봤듯이 메콩강유역국가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메콩강 유역과 해안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아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문제, 홍수, 델타지역의 침수 등이 직접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는 농업의 생산량 및 품질에도 적지 않은 영향으로 농촌인구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역량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CLMV 국가의 산업화 및 도시화의 가속화에 따라 폐기물 처리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따른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의 강화가 동시에 필요하다.

12)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태국 4개국 간 메콩강 유역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구이며 자세한 내용은 www.mrcmekong.org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환경) 분야 협력프로그램 예시		
프로그램	전략목표	세부프로그램
환경 관련 역량강화	환경보건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제고 및 예방·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여 'Clean and Green ASEAN' 실현에 기여	1.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녹색성장 및 환경보존 정책·전략 수립 및 자문 2. 환경문제 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 관련공무원 역량강화,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기술 전수

3. 향후 CLMV 사업의 지역과제 접근방법

① ASEAN 지역단위 정책 고려 : ASEAN 마스터플랜 및 공동목표 연구 및 고려

먼저 각 국별 사업을 기획할 때 사업이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해 ASEAN 공동체, 혹은 관련 지역공동체의 개발방향과 목표의 존재여부 및 관련정책을 사전에 파악하는 작업을 통해, 각 사업의 지역과제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 사업의 착수 및 실행 단계에서 각 사업의 수행기관이 지역현황 및 과제에 대해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협의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의 각 실행단계에서 ASEAN 지역과제가 함께 고민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각 국가의 개발정책 수립 및 컨설팅 사업일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우리 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각 국가의 정책 혹은 계획이 아세안의 정책과 지역의 추이를 잘 반영하고 녹여낼 수 있도록, 협력국 정부와 함께 논의하고 노력해서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관성 있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및 노동,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 지역연계의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서 제도 표준화 및 물적 연계성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각 사업단위에서 연구하고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②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 역내 삼각협력 및 민간협력 활성화

다음으로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효과적인 원조 또는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모든 개발 주체간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 개발주체는 공여국 정부와 개도국 정부뿐만 아니라 개도국내 정부와 민간, 공여국 및 국제기구간, 공여국내 부처간, 정부와 민간 등 실로 다양하다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주체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통합적 개발이 추진되는 것 역시 중요한 지원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각협력을 적극적으로 활

용할 필요도 있다. 삼각협력 등을 통한 국가 간 인적교류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 내 인적연계성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메콩유역국가 중 태국 또는 베트남은 수원국이기도 하지만, 인근 캄보디아, 라오스에 대해 많은 원조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을 주축국으로 삼은 삼각협력 추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문화적, 지역적 노하우를 함께 가미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도 있으며, 주축국 자체의 역량강화도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다. 또한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설립으로 인해 더 활발한 민간부문의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 시장으로의 진출을 노리는 민간 기업들의 기술 및 자본력을 활용해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 산업 및 경제의 변화추이에 대한 정보력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도 있다.

③ 무역 및 경제 관련 프로그램 강화 : 아세안경제공동체 구축에 일조

향후 경제의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아세안지역의 대내외적인 무역의 활성화가 예상되지만 CLMV는 대외개방형,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구축에 있어 초기단계로 그 관련 역량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단적인 예로, 이제 막 경제를 개방했지만 아직도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부족한 미얀마와 무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싱가포르의 격차를 생각해보면, 아세안경제의 온전한 통합에 있어 CLMV 국가의 관련 역량강화가 그 무엇보다 시급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CLMV 내에서 무역을 위한 개발원조(Aid for Trade; 이하 AFT)를 강화하고, 그 중에서도 KOICA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컨설팅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무역과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역량강화를 도울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궁극적 목적인 경제적 단일시장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국별 지원전략 및 실행사업

① 캄보디아

캄보디아 인구의 80%가 농촌에 거주하며 농촌 빈곤율이 35%로 종합농촌개발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물 관리 능력 강화, 농업의 산업화, 농촌종합개발을 통한 농촌의 사회적 자본증진 및 농민역량 강화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중이다.

- △ 농업투자촉진기구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011-2013/100만불)
- △ 통합 수자원 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2011-2013/30만불)
- △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을 통한 자립형 농촌개발사업(2014-2016/800만불)

또한, 산업화와 관광 및 무역산업의 비중 증가로 인한 교통인프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교통정책 및 유지관리능력이 미흡하다. 이에 교통인프라 확장 및 관련 건설,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 역량강화를 지원중이다.

- △ 시엠립 한국순환도로 건설 사업(2013-2014/1,200만불)
- △ 민간항공 관리역량 제고 및 교육센터 건립사업(2013-2016/1,010만불)
- △ 철도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011-2013/280만불)
- △ 3번 및 48번 국도 교통안전 개선사업(2011-2013/320만불)

다음으로, 시장수요에 맞는 숙련노동력은 부족하나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향상이 완만하고, 국가경쟁력 창출에 핵심인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분야 고급인력양성과 수급이 미흡하다. 이에 숙련노동력 공급을 위한 제도·정책적 지원 및 교육시설 인프라 지원,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역량강화 및 컨설팅 사업을 시행중이다.

- △ HRD센터 건립사업(2010-2014/745만불)
- △ 국가 과학기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011-2013/350만불)
- △ ICT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012-2014/200만불)
- △ 중등교육 기술직업분야 교육 타당성조사사업(2013-2014/200만불)
- △ 캄보디아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발전지원사업(미정/300만불)

마지막으로 모성 및 아동의 전반적인 MDG 지표는 향상 중이나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지역별·계층별 격차가 크며, 농촌지역 혹은 빈곤계층을 위한 기초보건 서비스역량과 의료인력 및 재정이 부족하다. 이에 기초보건의료 서비스 및 의료 접근성 강화, 보건분야의 포괄적 거버넌스 개선 및 보건인력 역량강화 지원중이다.

- △ 캄풍참주 밧티에이 지역 모자보건 역량강화사업(2011-2014/350만불)
- △ 프놈펜 앙두엥 안과전문병원 설립사업 (2011-2014/550만불)
- △ 국립소아병원 기능개선사업(2012-2014/500만불)
- △ 캄보디아 빈곤층 대상 건강형평 프로그램(2014-2015/500만불)

② 라오스

라오스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의 제한적 기회 및 질은 라오스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적합한 숙련인력 부족 현상을 야기하였다. 이에 KOICA는 교육환경개선 및 교사역량강화 등을 통한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기술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환경 선진화를 지원하고 있다.

- △ 라오스 한라직훈련 역량강화 사업 (2015-2016/300만불)
- △ 라오스 수파누봉대학 역량강화사업 (2014-2015/300만불)

또한 라오스는 새천년개발목표 중 아동영양지표, 5세 이하 아동사망률, 모성보건 지표 등의 달성현황이 부진하여 모자보건증진이 시급하며, 보건인력 부족현상은 도농 간 심각한 보건현황 격차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KOICA는 모자보건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술협력, 보건인력 역량강화 및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강화에 지원하고, 상수도시설 지원 등을 통한 위생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 △ 라오스 소아과의료인력 및 지역보건소 역량강화사업 (950만불/2013-2017)
- △ 라오스 우돔사이주 싸이군 상수도공급사업 (250만불/2013-2014)

③ 미얀마

미얀마 정부의 포괄적 성장 및 국가역량제고의 노력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기여를 협력활동의 최상위 목표로 정하였다. 4대 중점 지원 분야는 농업·농촌개발, 산업개발 등 경제발전과, 국가 거버넌스 향상, 인적자원개발이다.

총인구의 69%가 농촌에 거주하고 농업이 GDP의 30%를 차지하는 등 미얀마에서 농업 및 농촌 개발은 경제 전체의 다면적 개발(all-round development)의 바탕이 되고 있으며, 농촌 개발과 농업의 농촌인구의 소득증대와 빈곤감소 및 국가경제력 증진을 위해 필수이다. 하지만, 고비용·저효율에 의한 저생산성 및 농업 인프라 부족, 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보급 기관 역량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KOICA는 농업생산성 증대와 농업생산기반 확충, 새마을 운동 모델에 기반을 둔 미얀마 농촌종합개발, 농산업 촉진과 상업작물 다양화에 의한 농업가치사슬 확대 사업을 수행중이다.

- △ 미얀마 농산물 수확후 기술관리 지원사업(2011-2013/350만불)
- △ 미얀마 구제역 방지시스템 개선사업(2011-2013/300만불)
- △ 미얀마 기계화영농을 위한 농지정리 사업(2013-2015/600만불)
- △ 미얀마 새마을운동 지원사업(2014-2016/313만불)
- △ 미얀마 수확후 기술개발연구소 설립사업(2014-2016/410만불)
- △ 미얀마 수산양식산업 기반지원사업(2014-2016/441만불)

다음으로 미얀마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개발 계획이 있으나 오래 지속된 사회주의체제의 결과로 시장경제 기반의 산업개발을 위한 정책적 역량이 미흡하고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또한 제조업 비중이 낮고, 영세한 저부가가치 상품생산구조 등 산업 내재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관련 인적, 물적 인프라가 취약하다. 이에 KOICA는 산업개발 정책 및 전략수립 지원, 산업화 및 무역투자 부문 기관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발전 및 무역진흥을 위한 기관형성,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 예정이다.

- △ 미얀마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013-2015/400만불)
- △ 산업 및 무역 관련 부처 기관역량강화사업
- △ 미얀마 무역투자진흥원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Agency; MYTRA) 설립
- △ 양곤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 사업

또한 미얀마 정부의 거버넌스 강화는 미얀마 발전에 핵심적 요소이다. 정부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전자정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정부 내 단순 업무의 전자화를 기점으로 정부·기업 간, 정부·민간 간 행정적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 개방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거시경제 정책수립 및 운영을 위한 역량이 미흡하고 제도적 기반이 없다. 이에 KOICA는 국가통계, 거시경제 정책수립 및 운영 역량강화, 전자정부 구축 등 미얀마 정부 거버넌스 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 미얀마 개발 연구소(MDI) 설립사업(2013-2017/ 2,000만불)
- △ 미얀마 컨벤션운영 역량강화사업(2013-2014/100만불)
- △ 미얀마 국가통계 발전전략 수립사업(2013-2014/200만불)
- △ 조세 등 개발재원 동원 시스템 강화 컨설팅(2014-2015/25만불)
- △ 프로젝트 심사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컨설팅(2014-2015/25만불)
- △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및 액션 플랜 수립 사업(2014-2015/80만불)
- △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2014-2016/500만불)

마지막으로, 경제적 변화에 따라 시장의 새로운 수요에 상응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이 시급하지만, 교육훈련에 대한 공공 투자의 부족으로 교육훈련의 정책적 기반 및 교육수준의 질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KOICA는 그간의 교육인프라 확충에 이어 기술직업교육훈련 제도적 역량강화, 정책수립 및 실행 지원, 교사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 미얀마 직업교육교사 훈련센터 건립지원사업(2014-2016/300만불)
- △ 국가기술자격제도 구축 사업(2015-2016/100만불)

④ 베트남

현재 베트남은 산업화에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숙련 노동력과 고유의 기술이 부재하다. 이에 양질의 노동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산업발전에 필요한 고유의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고급전문인력 육성하는 사업을 지원중이다.

- △ 베트남 중부고원 소수민족 청소년 직업대학 향상사업(2013-2015/500만불)
- △ 베트남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구축 역량강화사업(2010-2013/150만불)
- △ 베트남 꽝찌성 중급직업 훈련학교 개선사업(2011-2013/470만불)
- △ 베트남 박장성 한베 기술대학 설립사업(2010-2014/1,000만불)
- △ 한베 친선 IT 대학 4년제 승격지원사업(2013-2015/520만불)
- △ 베트남 하노이 개방대학교 개선사업(2014-2016/300만불)
- △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3차 개선사업(2014-2016/600만불)
- △ 베트남 V-KIST(과학기술연구원) 설립지원 사업(2014-2017/3,500만불)

한편, 베트남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각종 법, 제도 혁신, 사회안전망 구축 및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행정 분야의 제도적 기반 미비 및 인적 역량 미흡이 향후 경제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IT 기반의 행정시스템 및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화 달성, 사회안전망 구축, 한국의 정부개혁 경험의 공유를 통한 베트남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 중이다.

- △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2013-2015/950만불)
- △ 베트남 토지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지원사업(2013-2015/350만불)
- △ 베트남 산업안전보건 훈련센터 개발 역량강화사업(2013-2014/340만불)
- △ 베트남 경쟁관리청 역량강화사업(2011-2015/180만불)
- △ 베트남 사회보험제도 구축 역량강화사업(2011-2015/110만불)
- △ 베트남 공기업 및 행정 개혁 자문 사업(2012-2015/140만불)

마지막으로 베트남은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와 이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기후변화 등으로 환경의 질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고,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각종 균형 잡힌 도시개발 계획수립 지원 및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환경 관련 정책 및 연구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중이다.

- △ 베트남 폐기물재활용 기술연구 역량강화사업 (2013-2015/150만불)
- △ 베트남 국가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013-2014/200만불)
- △ 베트남 후에시 개발 마스터플랜 개선사업(2011-2013/350만불)

참고문헌

국내문헌

- 정부부처합동(2012a), 베트남 국가협력전략 2012-2015.
 _____(2012b),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 2012-2016.
 주동주, 차문중, 권율(2012), 한국형 ODA 모델 수립, 서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산업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2011a), 거버넌스 지원 향상 방안.
 _____(2011b), 빈곤감소 및 빈곤층 친화적 성장관점 적용방안.
 _____(2011c), KOICA 교육분야 지원전략 2011-2015.
 _____(2011d), KOICA 보건분야 지원전략 2011-2015.
 _____(2012), KOICA 삼각협력 추진전략.

국외문헌

- Asian Development Bank(2011), The GMS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Strategic Framework 2012-2022, Philippines : Asian Development Bank.
 Asian Development Bank(2012), Myanmar : Interim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2-2014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2012), ASEAN 2030 Toward a Borderless Economic Community - DRAFT HIGHLIGHTS, Tokyo, Japan :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Berge, S.(2008), Poverty and Education, *Education Policy Booklet No.10*,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UNESCO
 Bonnel R.(2000), HIV/AIDS and economic growth : a global perspective, *South African Journal of Economics, Vol. 68 : 360-379*, Washington DC : World Bank.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1999), Consequences of health status : a review of the evidence, *CID working paper 030*,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Fosu A., Mwabu G.(2007), *Malaria and poverty in Africa*, Nairobi : University of Nairobi Press.
 Kuroiwa, I.(2009),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in CLMV', in Kuchiki, A. and S. Uchikawa (eds.), *Research on Development Strategies for CLMV Countries*, ERIA Research Project Report

2008-5, Jakarta : ERIA,

OECD(2012), Society at a Glance : An overview, in *OECD Society at a Glance : Asia/Pacific 2011*, OECD Publishing.

Pushpanathan S.(2012), ASEAN connectivity : prospects and challenges(*presentation at the Editor's roundtable on ASEAN : Global ASEAN and Connectivity*), Phnom Penh, Cambodia

SEN, A.(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Southiseng N.(2012), SME Development in the CLMV Region, *SIU Journal of Management, Vol.2, No.2 (December, 2012)*.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2006), Swiss Cooperation Strategy in the Mekong Region 2007-2011

H.E. Yong, O.(2005), Keynote Address by H.E. Ong Keng Yong (Secretary-General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The Role of Good Governance in ASEAN, at the ASEAN-EC Regional Symposium, Bandar Seri Begawan, 28 November 2005.

UN(2012),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2, New York : United Nations.

UNDP(2012), Asia Pacific Human Development Report : *One Planet to Share*, Bangkok : UNDP.

UNESCAP(2012), Asia Pacific Regional MDG Report 2011/12, Bangkok : United Nations and Asian Development Bank Publication.

World Bank(1998), Assessing Aid : What works, What doesn't, and Wh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08), Directions in Development :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Washington D.C. : The World Bank.

웹사이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www.asean.org
메콩강위원회	www.mrcmekong.org
세계보건기구	www.who.int
세계은행	www.worldbank.org
아시아개발은행	www.adb.org
한국국제협력단	www.koica.go.kr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호주국제협력청	www.ausaid.gov.au
Germanwatch	www.germanwatch.org